

믿 지 실 음 혜 천	<h1>BUDDHANARA</h1>	FAITH WISDOM ACTION
--------------------------------	---------------------	---------------------------

우리는 부처님 제자들이다. 스스로 타오르며 佛性을 밝힌다.

매달 첫째주, 셋째주 일요일: 정기 법회 11시
 첫째주 일요일 11시 초하루 기도 및 인등기도 법회
 셋째주 일요일 시 11시 전법 기도 법회 및 교리 탐구



부처님 제자들의 참선 모임
 - Buddha's Disciples Zen Meeting -

Every Saturday 10am. (매주 토요일 10시)
 Program: Sitting & Walking Meditation, Da-do (Tea Ceremony)

불국사 후원회 (불국회)

-법회는 한국에서 매달 있습니다. 한국에 계시면서 후원회
 법회 참가를 희망하시는 불자님 들은 미국 세인트루이스에 있는
 불국사나 한국에 있는 불국회 사무실로 연락 바랍니다.

이달의 법구경: -

홀로 저지른 죄악은
 홀로 고통을 당하고,
 죄악 저지르지 않는 사람
 홀로 청정하게 되네.
 청정과 염심은 자신이 만드는 것.
 아무도 내 허물 청정하게 만들 수 없네.

By oneself the evil is done, and it is oneself who suffers: by oneself the evil is not done, and by one's Self one becomes pure. The pure and the impure come from oneself; no man can purify another.

내 생명 부처님 무량공덕 생명 용맹정진하여 불국정토 성취한다.

불국사 (Buddhanara Temple)
www.buddhanara.net
 874 Berick Dr. St. Louis, MO 63132
 ☎ (314) 993-0185; 239-9068

2008 년은 부처님 말씀을 이웃들에게 전하는 “전법의 해”가 되도록 힘씁니다.

부처님의 덕성 - 十力.四無所畏.三念住 등- 일반인과 다른 18 가지 성품지녀

고통과 번뇌에 빠진 중생 깨달음 증득케 하는 지혜 확신 바른마음 구족

불교에서는 부처님의 성품에 대해서 명료하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부처님은 열 가지 지혜의 힘(十力), 의심 없는 네 가지 확신(四無所畏), 세 가지 바른 마음자세(三念住), 그리고 중생을 어여뻐 생각하고 구제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이 부처님의 성품은 모두 합하면 18 가지이고, 오직 부처님만 가지고 있다고 하여 18 불공법(不共法)이라 한다.

부처님은 열 가지 지혜의 힘을 갖고 있는데 이를 십력(十力)이라 한다. 도리와 도리가 아닌 것을 분명히 분별하는 지혜의 힘, 업과 그 과보를 분명히 아는 지혜의 힘, 여러 가지 선정에 통달한 지혜의 힘, 중생은 깨달음에 대해 저마다 다른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아는 지혜의 힘, 중생이 무엇을 원하고 그에 대한 의욕이 저마다 다를음을 아는 지혜의 힘, 중생의 성품을 아는 지혜의 힘, 중생이 수행에 따라 얻을 수 있는 깨달음의 단계를 분명히 아는 지혜의 힘, 중생의 전생에 일어난 모든 일을 아는 지혜의 힘, 중생의 내생에 일어날 모든 일들을 아는 지혜의 힘, 중생들의 모든 번뇌가 다하면 깨달음을 얻을 것이라는 것을 아는 지혜의 힘이다.

또 부처님은 의심 없는 네 가지의 마음 즉, 사무소외(四無所畏)를 갖고 있다. 첫째, 최고의 깨달음을 얻었다고 말하는데 조금의 의심도 없는 확신이다. 둘째, 모든 번뇌가 다 소멸되었다고 말하는데 조금의 의심도 없는 확신이다. 셋째, 모든 번뇌를 다 소멸시키는데 방해가 되는 그런 수행법을 분명히 말하는데 조금의 주저도 없는 확신이다. 넷째, 모든 번뇌를 소멸시키는 바른 수행법을 분명히 말하는데 조금의 주저도 없는 확신이다.

부처님은 세 가지 바른 마음, 삼념주(三念住)를 갖고 있다. 즉 부처님의 마음이 흔들림 없이 항상 그 자리에 있음을 의미한다.

첫째, 부처님은 중생이 부처님을 받들고 따르더라도 기쁜 마음에 흔들리지 않고 항상 바르게 알고 바르게 생각한다. 둘째, 부처님은 중생이 부처님을 믿지 않고 비방하더라도 불안한 마음에 흔들리지 않고 항상 바르게 알고 바르게 생각한다.

셋째, 부처님은 중생이 믿지 않고 비방하더라도 기쁜 마음과 불안한 마음에 흔들리지 않고 항상 바르게 알고 바르게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부처님은 십력(十力), 사무소외(四無所畏), 삼념주(三念住)의 성품을 갖고 중생에게 대자(大慈)를 베풀고, 대비(大悲)로 고통과 번뇌의 세계에서 괴로워하는 중생들을 어여뻐 생각하여 구제하고자 한다.

선망부모 천도하는 우란분재 (백중)

삼보에 대한 믿음으로 효 실천하는 '진리법석'

**영가를 위해 재를 지내는 것은
불법을 들어 마음 닦을 기회를 주고
유가족이 불보살과 스님, 대중에게
회향함으로써 공덕을 쌓아주는 것이다.**

각 사암에서는 무자년 음력 7 월 보름 백중(우란분절)을 앞두고 살아계신 부모님께 효도하고 돌아가신 조상영가, 인연 있는 영가천도를 위한 백중 천도 기도를 봉행할 것입니다.

우란분재(盂蘭盆齋)란 매우 지독한 고통을 받는 지옥 중생들을 위해 성대하게 올리는 불공으로, '지옥, 이귀, 축생' 등 삼악도에서 괴로움을 겪고 있는 중생들을 위해 후손들이, 선대부모 조상영가와 인연 있는 영가들의 극락왕생과 부처님의 바른 법을 알게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하는 행사인 것입니다. 또한 우란분재는 불, 법, 승 삼보에 대한 지극한 믿음으로 효도를 실천하는 행사이며, 보다 나은 새 삶을 위해 정성을 다해 진리의 법석(法席)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백중이 불교의 명절이 된 것은 부처님의 제자 가운데 신통력이 뛰어났던 목련존자가 어머니를 아귀도에서 구하기 위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음력 7월 15일 하안거가 끝나는 자자일(自恣日)에 여러 수행 스님들을 공양한 고사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지옥에서 고통 받는 모습을 보고 부처님께 사되어 구출하고자 하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7월 15일은 모든 스님들이 여름 안거를 마치고 해제일을 맞아 화합된 모임을 갖는 날이므로 일체 중생을 위해 천도를 지내면 어머니는 그 인연공덕으로 반드시 극락정토에서 왕생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에 목련존자는 우란분재를 지내고 어머니의 몸을 천도하여 부처님의 설법을 듣게 하여 지옥고를 벗어나 천상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 모두 지극한 목련존자의 효심의 발로라 하겠습니다. 중생들에 있어 부모님의 지중한 인연을 생각할 때, 자신의 부모가 만약 지옥에서 고생한다거나 혹은 무주고혼으로 떠돌아다니는 것을 어찌 방치할 수 있겠습니까. 마땅히 효심을 내어 위로하고 천도를 해서 좋은 길을 찾아가도록 해야겠지요.

우란분절에 우리 불자들이 생각해야 할 것은 부모님에 대한 효도의 마음이 아닌가 합니다. 효는 부모님 생전이나 사후나 똑같이 지성과 예(禮)로서 섬김으로써만 그 도를 다하는 일이 됩니다. 사후까지 영혼을 모신다는 점에서 불교는 가장 정성을 다하는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란분재는 꼭 자기 조상만을 위하는 게 아니라, 일체 유주무주 고통들을 위해 천도해줌으로써 공덕을 짓고, 그 공덕을 일체 중에 회향하므로 모든 고통 받는 마귀나 귀신이나 중생들이 이고득락 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부처님 전에 우란분재를 지내거나 불공을 하고 백중기도를 봉행하여 조상님들을 천도하는 의식은 후손의 도리를 다하기 위해서입니다. 불자들은 살아계신 부모님께 효도하고 조상영가 인연영가 수자령 영가 천도를 위한 무자년 백중기도를 계기로 삼아서 절대로 악도에 떨어지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생전에 효도를 다하지 못했다면 백중기도에 동참하여 조상영가의 극락왕생과 누집의 업장을 소멸하는 의식에 동참하여 자식 된 도리를 다하시기 바랍니다.

What is True Compassion and Reprimand?

One time, a non-believer asked Shakyamuni Buddha:

“I will ask neither with words nor without words. Would you tell me what neither existence nor non-existence really means?”

Buddha kept a good silence.

Seeing the good silence of Buddha, the non-believer, with great admiration, said, “I am truly grateful for your great compassion, which awakened my ignorance by clearing the dark cloud over my head.” The non-believer then quit the place.

When the non-believer was gone, Ananda asked the Buddha, “What is that made the non-believer attain enlightenment?”

“It is like a horse of good breed starting to gallop at the mere sight of the shadow of a whip,” said the Buddha.

If anyone wishes to know the great compassion of Buddha and the meaning of shadow of his whip, there is only one true way – to take up a hwadu and practice without stopping. I tell you the practitioners of retreat; it is totally vain to know the intent of the good silence of Buddha and the meaning of shadow of his whip. It is even more absurd to think that the Buddha had actually raised a whip when he kept a good silence.

If anyone is able to break through their HWADU and realize the true meaning of all these quizzical happenings, all the great Patriarchs under the haven would be good fellow-practitioners of that non-believer who questioned Shakyamuni. However, if anyone is unable to realize the true meaning of the good silence, even the man of great wisdom would not be any better than that non-believer in the Western Heaven. A single eye of the Buddha has penetrated the three realms, past, present, and future; and the two eyes of the non-believer cut through the five realms of Greater India.

When the non-believer asked Buddha to answer neither with words nor without words, he was asking the Buddha to say something without relying on “four propositions” or “hundred negations.” There is a prototype of this case when a man paid a visit to the Great Chan Master Mazu Daoyi (709-788) and asked the Great Master to

answer the meaning of Patriarch's coming from the West without relying on "four propositions" or "hundred negations."

All the practitioners should lock up the door and practice hard staking one's own life for attaining enlightenment relying neither on "four propositions" nor on "hundred negations."

A thin thread of lotus root topples Mr. Sumeru,
And a tiny mustard seed is shaking great Heaven
By raising thunder and lighting.

November 2551 : On the opening day of the Winter Retreat
The Supreme Patriarch of the Jogye Order

견문각지(見聞覺知)란 무엇을 뜻하는가?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능력’ 말함탁월 하나 끌려가면 고통 따라와

문 : 법문을 들을 때나 교리에 대한 서적을 보면 ‘견문각지(見聞覺知)’라는 단어를 많이 대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체로 ‘보고 듣고 깨닫고 아는 것’이라고 풀이하면서도 전체적인 내용에 상반되는 경우가 많아서 혼란스럽습니다. 어떤 경우는 “보고 듣는(見聞) 놈이 누구인지 깨달아 알아야(覺知) 한다”고 풀이하러 수행의 전 과정처럼 설명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보고 듣고 깨달아 아는 것에 끌려 다녀서는 안 된다”고 하는 식입니다. 정확한 뜻이 어떻게 되는지요.

답 : ‘견문각지’라는 용어에서 ‘각지(覺知)’가 무엇을 뜻하는지를 몰라서 일반 사전식 해석을 함으로써 생긴 문제입니다. 이때의 각지(覺知)는 ‘깨달아 안다’는 뜻이 아니라, ‘느끼고 안다’로 풀이해야 합니다.

견문각지라는 용어는 불교의 인식론(유식론)에서 나온 것으로 인식기능인 ‘여섯 가지 인식(六識)’의 작용을 네 가지로 정리한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눈(眼) 귀(耳) 코(鼻) 혀(舌) 피부(身) 마음(意)의 여섯 가지 인식기관이 있고, 이 기관들은 각각 고유의 인식기능이 있습니다. 그 기능의 작용을 보면, 눈은 보고(見) 귀는 듣고(聞) 코는 냄새를 맡으며(聞) 혀는 맛을 느끼고(覺) 피부(온 몸)는 촉감 등을 느끼고(覺), 마음은 앞의 다섯 가지를 통합하거나 고유의 기억작용 등과 연계해서 판단하고 아는(知) 것입니다. 다시 말해 견문각지(見聞覺知)는 우리가 지닌 탁월한 능력을 요약한 것이며, 그 작용이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것이라는 뜻이 됩니다.

위의 뜻에 따라 질문에서 제기했던 문장을 다시 정리하면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한다.”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것에 끌려 다녀서는 안 된다”고 할 수 있겠지요. 두 문장에는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그것이 진짜가 아니라는 뜻이 숨어 있습니다. 분명 탁월한 능력이라는 하지만 오직 그것만이 진실이라고 집착하게 되면 그때부터 자신이 자신을 속이는 묘한 상황이 전개됩니다. 흔히 인간이 다른 생명체에 비해 우월하다고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이 탁월한 인식능력을 왜 불교에서는 그대로 인정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은 인식능력 자체가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그것이 주인 노릇하게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대체로 사람들은 보고 듣고 느끼고 기억하며 분별해서 아는 그것이 가장 확실하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결론에 도달하는 경우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만이 옳다고 주장하게 되면 다른 사람과 충돌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곧바로 갈등과 싸움으로 이어져 큰 불행을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벌어졌던 엄청난 전쟁도 그 시작은 단순한 생각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나의 달을 보면서도 슬픈 생각을 하기도 하고 기쁘게 보기도 하며 고민에 빠지기도 하며 편안하기도 한 것이지요. 똑 같은 사람을 두고 어떤 이는 그를 나쁘다고 하고 다른 이는 착하다고 합니다.

부처님은 낱알의 생각들이 절대적으로 영원히 옳은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아무 생각도 없이 살라는 뜻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일어난 그 생각에 절대적 가치를 두지 말고 치우침이 없는 중도적 지혜로 밝게 보라는 것입니다. 중도적 지혜를 발현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모든 생각이 물거품 같고 그림자 같으며 번갯불 같은 것임을 밝게 봐야 합니다. 한 생각이 일어나 끌려가기 시작하면 그림자처럼 고통이 따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이 일어나기 전의 그 자리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하는 것이지요.

금주의 불서 베스트셀러 (6.16~6.22)

제목/ 저자/ 출판사/

1. 욕망, 삶의 동력인가 괴로움의 뿌리인가/ 정준영 외/ 운주사
2. 원력/ 헤인/ 클리어마인드
3. 언젠가 이 세상에 없을 당신을 사랑합니다/ 월호/ 마음의 숲
4. 인연(1)/ 정찬주/ 작가정신
5. 아발로키테슈와라, 당신은 나의 연인/ 월호/ 운주사
6.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월호/ 불광출판사
7. 나를 깨우는 108 배/ 구분일/ 김영사
8. 아름다운 인생은 얼굴에 남는다/ 원철/ 뜰
9. 절을 기차게 잘 하는 법/ 청견/ 붓다의 마을
10. 스님 마음이 불편해요/ 법륜/ 정도

- 자료제공 : 운주사(6.16~6.22)

여름음식 : 도토리묵 냉채

시원한 국물에 묵을 말아서 먹으면 감칠맛나는 여름 음식이 됩니다. 도토리는 중금속을 해독시켜주는 능력이 뛰어나서 요즘처럼 갖가지 환경오염으로 인한 공해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아주 훌륭한 식품입니다.

도토리묵은 칼로리는 낮지만 포만감이 커서 다이어트를 위한 식사대용으로 좋습니다. 특히 묵 하나로 여러가지 요리가 가능합니다. 묵을 쭈어 양념장에 무쳐 먹고, 차가운 국물이나 더운 국물에 말아도 먹고 묵이 조금 굳으면 들기름에 부쳐도 먹고 더 많이 굳어지면 굵게 채를 썰어서 햇볕에 바짝 말려다 다시 불려서 볶거나 조려도 먹습니다.

스님들께서는 음식을 드시고 속이 거북 하실 때 도토리가루를 물에 타서 드시기도 합니다.

묵을 쭈 때는 묵이 영긴 시간만큼 뜸을 드려주어야 묵이 끓어 지지않고 쫄깃하며 먼저 6 배 정도 물을 부어 묵을 쭈면서 쭈어지는 상태에 따라서 나머지 물을 넣으셔야 질지 않은 묵을 쭈니다.



재료 /

도토리묵 1 모, 오이 1/2 개, 김 2 장, 다시마물 2 컵, 간장 1 큰술, 소금약간, 설탕 1 큰술, 식초 2 큰술

만드는 법 /

1. 도토리가루와 6~7 배의 물을 준비 한다. 2. 도토리가루에 먼저 2~3 배의 물을 부어서 저어준 뒤 고운체에 내려 묵을 쭈 냄비에 담고 나머지 물을 넣어 묵을 쭈다. 3. 묵이 영기면 오래도록 뜸을 드려서 너무 깊지 않은 네모난 그릇에 부어 식힌다. 4. 쭈어진 도토리묵을 채썰고 오이도 채썰고 김은 구워서 알맞게 자른다. 5. 다시마물에 간을 하여 냉채 국물을 만들어 채썬 도토리묵에 붓고 오이와 김을 얹는다.

- 불교신문에서 발췌-

법회소식 NEWS

- 양력 8월 15일 (음력 7월 15일)은 백중 (우란분절)입니다. 불국사에서는 양력 8월 둘째주 일요일인 8월 10일날 백중 (우란분절) 천도 제사를 올립니다. 이날 선망부보, 일가친척, 수자영가등 인연있는 모든 영가님들을 위한 기도를 봉행합니다. 우리 전통 명절인 백중. 우란분절은 신라와 고려시대부터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참여하는 그야말로 성대한 날이었습니다. 특히 이 날은 불교의 5대 명절중 하나로, 조상님들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는 효행의 날이기도 합니다. 목련존자의 효심에서 비롯된 우란분절, 부처님께 공양올리고 정진하며 조상의 극락왕생을 발원하기를 기원합니다. 이 날은 목련존자가 지옥에 빠져 고통 받는 어머니를 위해 덕이 수승한 스님들께 공양 올려 그 범력으로 해탈의 문으로 들어가게 하신 날로, 미혹에 사로잡혀 거꾸로 매달린 듯 고통 받으며 악도를 헤매는 수많은 중생들을 해탈시키는 날입니다. 우란분절에 보면 일년에 한번 백중날 지옥문이 열린다 합니다. 우란분절을 기러 저희 불국사에서는 지극한 믿음으로 효도를 실천하고자 살아 계신 부모님과 돌아가신 조상·친족 및 유자령(流子靈:유산된 태아의 영혼)영가 및 지난 일년간 알게 모르게 원결을 짓게된 모든 짐승 및 벌레 영가들도 극락왕생할 수 있도록 천도기도를 올립니다. 즉 부모의 공덕과 삼보의 공덕을 기리며 불보살님께 공양을 올리면서 그 위신력을 빌어 중생이 지은 악업의 무거움을 구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란분절 천도제는 출가자의 수행 공덕과 보시자의 공양 공덕이 함께 어우러졌을 때 어떤 악업의 중생도 구제될 수 있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근거한 전통 의식인 것입니다. 삶속에서 보살행을 실천하고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법사가 되어 널리 이웃에게도 선망조상 및 유주무주 고훈 영가천도의 귀중함을 권선 하시고 이웃과 함께 불사인연 나누시어 나와 내가 함께 성불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어 그 인연 공덕으로 무량 복락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불국사와 인연있는 모든 신도님들은 빠짐없이 기도에 동참해 주십시오. 백중기도 동참비는 \$100.00 (한국에서 동참하시는 분은 일십만원 입니다.) 입니다만 경제 사정상 어려우신 신도님들은 회장님이나 총무님과 상의 하셔서 기도비를 절충해 주십시오.
- 불국사 주지 선각 스님은 7월 13일 불교 TV 방송 “일요법문” 및 방송, 7월 20일 해병대 사령부 쌍룡사 법당에서 법회 그리고 에틀랜드 불사 관개로 7월 7일 부터 7월 23일까지 한국으로 일시 귀국합니다. 주지 스님이 안계시는 동안에도 회장님 집전하에 셋째주 일요일 법회가 예정대로 있습니다.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스님 법문을 듣고자 하시는 신도님들은 인터넷 불교 TV 방송 이나 케이블 방송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6월 신규 인등 기도 동참자: 19번 을사생 고려 송보영, 20번 을사생 극락심 강효정, 100번 기사생 박신혜, 160번 병자생 김인규, 161번 신사생 오옥선, 162번 임인생 김용오, 219번 갑진생 묘본성 강영순, 232번 을유생 백인선, 233번 경인생 양순복, 234번 기미생 백진희, 235번 임술생 백지은, 293번 기유생 조성기, 294번 임자생 우주화, 295번 정축생 조지현, 296번 경진생 조원희, 297번 을묘생 우찬홍, 298번 정유생 범나 장영국, 299번 무술생 손경자, 300번 정묘생 장윤정, 302번 계유생 민경문, 341번 병진생 이준혁, 342번 임자생 이태운, 343번 계축생 이재운, 480번 신사생 진종득, 481번 경인생 원행화 이정숙, 482번 신해생 진병학, 483번 을묘생 김지영, 484번 갑인생 진옥진, 485번 정축생 이동규, 486번 병오생 박진, 487번 기축생 석창기, 488번 병신생 장용주, 489번 경오생 옥지영, 490번 임신생 옥지수.

인등기도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인등기도는 매달 첫째주 일요일에 있습니다. 인등 기도에 동참하신 불자님들은 꼭 법회에도 참석해 주십시오. 부득이한 사정으로 법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불자님들께서는 집에서라도 마음과 몸을 정갈하게 갖고 가정에서라도 꼭 기도에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부처님께서서는 세상 사람들이 부처님을 모시는 가람을 지으면, 그가 후세에 태어나는 곳마다 지혜와 복덕이 구족하다고 하셨습니다.

동서를 막론하고 중생들은 사바세계가 혼탁하고 탁류가 거셀수록 부처님의 자비하신 참모습을 그리워하고 그 정신대로 살아가도록 더욱 간절한 원력을 세웁니다. 또한 물질과 마음의 정서가 어지러운 세상일수록 마음의 교양과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담당해 줄 곳을 찾기 마련입니다. 현재 미국에서 기하급수로 늘어나는 불교인구가 그것을 잘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방면의 불교 포교를 위해서 법당과 선방 건립에 필요한 한 평 불사 인연에 불자님들을 초대합니다. 자비심이 지극하신 분들의 정성으로 이룩된 붓다나라 템플은 부처님의 뜻을 받들어 불국도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는 희망차고 기쁨에 찬 수행처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지은 이 인연공덕으로 불자님의 가정마다 부처님의 가피가 가득하여 자비의 문이 열리고 이 세계가 불국정도 되기를 합장 발원합니다. (부처님 불사는 \$10,000(일천만원)이고, 한 평 불사는 한 평에 \$1,080.00(백 팔만원)입니다.)

나무 석가 모니불, 나무 석가 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 모니불.

6월 한 평 불사 동참자: 관도 김정기.

불사 동참을 원하시는 불자님들께서는 미국 불국사 회장님이나 총무님, 또는 한국 불국회 회장님 및 불국회 회장님 및 총무님께 연락 주십시오.

Buddhanara Temple (불국사) 불자님들 주변의 소식을 접수 받습니다. 기쁜 일은 서로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픈일은 같이 나누면 반으로 된다는 부처님의 자비 사상에 입각해서 불국사 (Buddhanara Temple) 가족들의 경조사를 같이 나누었으면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매주 일요일 정기법회에는 꼭 참석하시어 항상 새로운 마음의 발심을 일으키는 좋은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불 합시다.